

홈 > 뉴스 > 전시 > 전시사

[전시사] 스텔링 루비, 입던 옷도 바닥에 깔린 골판지도 그 에겐 모두 예술

미국 작가 스텔링 루비, 국제갤러리서 한국 첫 개인전

2013년 04월 11일 (목) 20:06:59

이혜원  @dipsylee

스텔링 루비(Sterling Ruby · 41)의 눈에는 모든 것이 예술의 소재다. 몇 년간 작업실에서 받침대로 쓰던 골판지를 캔버스에 붙여 작품으로 만드는가 하면 고온에 타버린 도자기도 어엿한 작품이 된다.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는 재활용(recycling)이다.

이와 같은 작품 세계를 구축한데는 유년기 시절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시골마을에서 성장한 루비의 주변에는 아미시(Amish) 친구들이 많았다. 현대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소박한 농경생활을 하는 아미시들이 퀼트로 생산한 조각보가 소년의 마음을 끌었다. 또 농민들이 오래 입어 헤진 옷을 퀼트로 다시 만들어내는 사례도 그에게 영감을 줬다. “기하학적인 무늬에 굉장히 매료됐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같았죠.”



▲ 작업실에서 사용하던 골판지를 캔버스에 붙여 만든 작품 'BC(3977)' 유니온프레스 이혜원 기자

타버린 도자기와 여러 오브제를 더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베이슨(Basin)' 연작도 재활용의 연장

선이다. 작가는 굵은 과정에서 타버린 잔재를 작품에 담았다. 세라믹과 브론즈로 제작된 베이슨 연작들은 일종의 제단처럼 전시장 중앙에 설치됐다. “도자기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공예 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덤처럼 보이는 이 잔재들은 고고학적, 구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스프레이로 그린 회화 작품도 전시된다. 희미한 안개처럼 보이는 이 회화 작품은 갯단들이 영토싸움을 하는 광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200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한 스틸링 루비에 따르면 수십 개의 갯단들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스프레이로 벽에 흔적을 남겼다고 한다. 아침에는 3~4개 정도였던 흔적들이 저녁이 되면 수십 개로 늘어나고, 다음날 아침에는 경찰들이 이를 모두 지워버려 다시 흰 벽이 됐다. 그렇게 칠하고 지우기를 반복해 스프레이의 흔적이 남은 벽을 모티브로 해 스프레이 회화를 완성했다.

여러 가지 색이 오묘하게 배합된 이 회화는 인상주의 화가 모네를 영두에 두고 만든 색이다. 갯단들이 그린 스프레이 회화에 영감을 얻어 잔잔한 모네의 색을 표현하고자 했더니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한다. “일본 나오시마에 갔을 때 모네의 전시를 본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겪은 최고의 미술 경험 중 하나였죠. 대리석으로 된 전시장에 벽과 천장, 모서리 등 모든 것이 곡선으로 이뤄져 있었습다. 마치 영화 세트장에서 모네를 만난 느낌이었습다.”



▲ 스틸링 루비가 모네의 색을 영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스프레이 회화 'SP235'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니온프레스 이혜원 기자

이날 스틸링 루비는 자신이 직접 만든 옷을 입고 기자간담회에 나왔다. 몇 년 전부터 작업실에서 천 작업을 시작해 옷에 물을 들이고 있다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노란 머리에 푸른 그러데이션 옷을 입은 루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처럼 보였다.

스털링 루비의 한국 첫 개인전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1관과 3관에서 열린다.

© 유니온프레스(<http://www.union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